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박앤박치과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지난 31일 박앤박치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 내 의료기관 발굴을 통해 치과 방문 진료를 진행하여 전북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의료복지 증진과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향후 양 기관은 보호대상자 치과 진료 외에도 건강강좌 및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 도모에 힘쓰기로 했다.

박앤박치과 박홍규 대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숙식대상자의 건강검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박홍규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해나가며 스스로 자립해나가는 분위기를 만들고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은 “박앤박치과와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하며 “건강한 신체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지평선산업단지협의회, 김제시에 1000만원 기탁

김제시는 지평선산업단지협의회가 지난 31일,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열기를 더했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연속 이어진 기부로,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김대중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소양농협, 2025년 새해맞이 동지팔죽 나눔 행사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은 최근 소양농협 주차장에서 2025년 새해맞이 동지팔죽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소양농협 농가주부모임, 교향주부모임, 부녀회 등 자원봉사자 30여명이 함께 참여했고, 소양농협은 110kg의 팔을 준비하여 800여명의 지역주민들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눴다.

유해광 조합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주=열재복 기자

남원 동광교회, 남원시에 희망상자 25개 기부

남원시가 관내 동광교회(목사 김성균)가 최근 동광교회에서 총 25개의 희망 상자(환가액 250만원 상당)를 시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상자 기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전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상자 하나당 약 1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이 담겨 있다.

김성균 목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호원대 K-미래인재대학 김나형 학장, 교육부장관 표창

전문 인재 양성 · 대학 고등평생교육체제 확산 기여 공로 '인장'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K-미래인재대학 학장이자 K-푸드창업학과 학과장인 김나형 교수가 지난 31일 대학의 고등평생교육체제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호원대학교는 2023년 광역지자체 연계형 LIF 2.0 사업에 선정되어 K-미래인재대학을 신설, 성인학습자와 재직자들을 위해 삶과 학습이 하나가 되는 교육패러다임의 선두주자로서 최적의 교육환경을 성공리에 구축해 왔다.

이번 김나형 교수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은 호원대 K-미래인재대학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여 전문적 직업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고등평생교육체제의 확산에 주력해 온 노력의 귀중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호원대 강희성 총장은 “김나형 교수의 교육부장관 표

창 수상은 지역과 대학이 협력을 기반으로 상생하고 전북고등평생교육의 성공적, 안정적 안착을 통해 지역 발전과 정주인구 확산이라는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쁨을 함께 했다.

2024년에 K-미래인재대학 학장으로 부임한 김나형 교수는 광역지자체 연계형 LIF 2.0 사업을 수행하면서 온라인 수업, 주말 대면수업을 병행하면서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마이크로디그리와 나노디그리, 리빙랩 등 지역 연계 교육과정 확산과 전북시민대학 부안캠퍼스, 비하위프로그램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고등평생교육체제의 구축과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김나형 교수는 이번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을 통해 “호원대학교 K-미래인재대학 학장이자 K-푸드창업학과 학과장으로서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를 위한 진화적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있어 그 책임이 더욱 막중한 느낌”이라며, “지자체와 대학이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와 동반 성장하고,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담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주대 송호선 실장, 고용부장관 표창 수상

2024년 청년고용 활성화 부문 유공자 선정

전주대학교 송호선 진로취업지원실장이 2024년 청년고용 활성화와 유공자 로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송 실장은 2020년부터 진로취업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거점형 특화 사업,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 수행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며 4년 연속 ‘우수’ 평가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업 특성 및 수요에 기반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IT 기업협의체 네트워크 확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청년 채용 연계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전라제주권 대학 17개교가 참여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 회장으로서 세미나 개최와 각 대학의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또 거점형 지역청년고용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청년 및 특성화 고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로 활성화에 선도



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송호선 실장은 “청년 특화 워크숍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청년 생애 주기별 경력개발 종합지원 체계를 활성화하고, 도내 산업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개선을 더욱 강화해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기자

김희민 박사과정생, 일본학회 ‘포스터발표 우수상’

전북대학교 소아치과 김희민 박사과정생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41회 일본장애헤이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희민 대학원생 연구는 전국 11개 대학병원 소아치과를 대상으로 희귀질환 환자의 치과 치료 데이터를 수집해 희귀질환 현황, 치료 유형 및 빈도, 치료 비용 등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소아 희귀질환 환자들이 구강 내 합병증과 기능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 예방 및 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희민 대학원생은 “이번 수상이 희귀질환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치과 의료 지원 확대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故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의 선정 과제로 수행됐다.

특히 전북대 치과대학 양연미 교수의 총괄책임 하에 전국 소아치과 교수진은 현재 치과적 합병증을 동반하는 소아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코호트 구축과 임상 진료 지침 개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KOICA와 해외봉사활동 학점인정 협약

전주기전대학은 지난 12월 30일 종합행정동 회의실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희천 총장을 비롯해 조덕현 부총장, 서정숙 평의원회의장과 KOICA 글로벌인재사업 정윤길 본부장, 강대구 해외봉사총괄팀장, 이서현 해외봉사총괄팀 과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기전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협력 국가로 지정된 개발도상국 현지에 파견돼 수행하는 해외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중이다. 최소 2주부터 최대 2년까지 운영되는 해외봉사활동을 학점으로 환산해 최소 2학점에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파견 해외 봉사단 사업인 ‘월드프렌즈코리아(WTFK)’ 단원 모집 및 해외봉사 참여 등을 위해 협력하고,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 시간에 따른 학점을 인정할 수 있게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윤길 본부장은 “청년들의 개발협력 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올해부터 KOICA 청년 이니셔티브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미래의 꿈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천 총장은 “전주기전대학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설립된 학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이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화 지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인재상인 특화기술 전문인, 실천형 봉사인, 국제생활형 직업인에 적합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645-98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익산지사 858-98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9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8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